특 집

2002년도 아시아 · 태평양 주요국가 전자산업동향 (Ⅱ)

Ⅱ. 국별 전자산업 동향
- 인도 · 이스라엘 · 남아프리카 공화국

Ⅱ. 국별 전자산업 동향

인 도

1) 최근동향과 중기전망

LEADING ECONOMIC INDICATORS
(% increases)

	2000	2001	2002
Growth of GDP	6.4	5.0	5.6
Consumer Price Index	3.3	4.0	5.0
Industrial Production	6.6	5.0	5.0

인도경제는 매년 6%씩 완만한 성장을 계속해왔다. 실질 GDP 성장률은 회계연도 1998-99년에 6.6%, 1999-2000년에 6.4%에서, 2000-01년에는 5.2%로 하락하였다. 농업성장률의 4.6% 하락과 산업생산의 현저한 감소가 2000-01 회계연도 경기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도 준비 은행은 2001-02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6~6.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전망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계속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이다.

2) 정부정책

인도는 여러 차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대부분 단명하였기 때문에,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기가 힘들었다. 최근 1999년 9월 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에 광범위한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 효율성을 증진하고,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1994년과 1995년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개혁은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개혁의 속도가 늦추어졌다. 당시 인도는, 다수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치상황에서, 기초 농업상품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삭감, 주정부 소유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개혁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겼던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의 필요에 대한 주요정당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속도는 늦추어졌지만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2월 28일 제출한 2000-01년 예산안에서는, 특별소비세를 간소화하고, 대출비용을 낮추며, 노동법을 탄력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예산안에는, 직접세 부가금을 없애고, 배당금 징수세를 10%로 축소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4월 1일, 715 조항을 삭제하여 마지막 남은 제한규정이 사라졌고, 인도는 WTO 협약에 순응하게 되었다.

3) 산업전망

2000-01년에 산업생산은 5% 둔화되었고, 1999-2000년에는 6.6%의 성장둔화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성장은 전년도에는 6.8% 하락하였고, 2000년에는 5.6% 하락하였다. 2001년 4-5월의 산업생산은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전년도 6.5%에 비하여 2.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기반시설의 확충문제와, 공공투자와 개인투자의 저조, 심한 몬순의 영향으로 2000-01년에는 산업활동이 둔화되었다. 미국경제의 둔화 역시 이러한 경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많은 산업부

문의 불확실한 수요에 따른 초과 생산은 투자에 악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기반시설은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매년 100억 달러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 전자산업 동향

전자회사의 총수 : 3504 (1997)

1980년대에 인도의 전자산업은 소비재 산업이 주 동력이 되어, 매년 30% 이상 급성장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져서, 1995년과 1996년에는 12%, 1997년에는 7%, 1998년에는 5%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12%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에는 10%로 다소 주춤하였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1995년과 96년의 실제성장률은 단지 2%에 불과하며, 1997년에는 변동이 없고, 1998년에는 8%, 1999년과 2000년에는 6% 하락한 셈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의 실질 성장이 4%에 불과하며 경기가 하락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1년 인도의 전자산업생산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지난 몇 년간 무역정책의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수입관세와 함께 원자재와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재정조치는 전자산업을 부흥시키고, 이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시아의 위기로 전자장비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수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었다.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에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수입은 1997년과 1998년에 34% 증가하였고, 1999년에 28%, 2000년에 2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1997년에 7%, 1998년에 26% 감소하였지만, 1999년에 45%, 2000년에 20% 증가하였다. 수입품의 시장비율은 1993년 16%에서 2000년 36%로 증가하였다. 수출은 1993년에는 전체 생산의 7%, 1996년에는 12%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 7%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 다시 11%로 늘어났다.

시장의 성장속도는 생산증가속도보다 빨랐고, 1998년 2%, 1999년과 2000년에는 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인도의 가전제품산업은 거대한 시장에 힘입어 성장해왔고, 여전히 전자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500여 개의 회사 중에서 400개 이상이 소규모 제조업체로, 수입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구성부품을 조립한다. TV 제조업이 가전제품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컬러와 흑백 TV가 이 부문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TV 수요의 증가는, 인도인들이 의사소통과 오락의 도구로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컬러 TV의 생산은 1993년 백만 대에서, 2000년 5백만 대로 급증한 반면, 컬러 TV의 수입량은 아주 적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흑백 TV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흑백 TV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인도는 흑백 TV를 1993년에 4백 1십만 대, 1996년에는 6백만대를 생산하였고, 2000년에는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여 5천 3백만 대를 생산하였다.

인도의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3-96년에는 평균 20% 성장률을 보였고, 1997년에는 4% 성장하였다. 1998년에는 생산이 18% 감소하였으나, 1999년 9%, 2000년 12%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컴퓨터 부문에는 150개 이상의 업체가 속해 있으며, 그 중 100개 이상은 소규모 업체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연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주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문은 1995/96년에 50% 이상 성장하면서, 총매출액이 400억 루피를 상

회하였다. 이것은 연감에 기록되지 않은 부문의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2000년, 전자 부품 생산은 전체 생산의 20%를 차지하며 크게 성장하였다. 부품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컬러 TV 브라운관이다.

1994년, 컬러 유리가 상업적으로 생산되었고, 국내 유리를 사용하는 CRT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그 이후로, 생산은 170%로 급증하였고, 2000년에는 TV 브라운관 시장의 90%가 국내제품으로 충당되었다.

인도는 경제의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부가 새로이 도입한 산업, 무역, 재정정책은 전자산업의 기술진보와 국제 경쟁력 향상의 길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라이센스 제도가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었다.

자유시장 경제가 확립될 때까지 이러한 자유화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구조에 따른 보호주의의 장벽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하위부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더 높다. 완전히 비효율적인 고비용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괴상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머더보드 시장은 밀수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인도 전자산업 생산전망

(단위 : 백만불)

품 목	1999	2000	2001	20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580	624	655	701
사무기기	73	78	82	85
계측기기	348	401	421	438
의료 및 산업용기기	155	160	169	180
방송기기	527	543	559	582
통신기기	464	465	477	501
가정용기기	1867	1951	2032	2180
비디오	1343	1376	1418	1531
오디오	324	361	390	413
기타기기	200	214	224	236
전자부품	987	1031	1080	1147
능동부품	432	454	484	518
수동부품	352	365	376	398
기타부품	204	212	220	231
총 계	5002	5255	5474	5813

이스라엘

1) 최근동향과 중기전망

LEADING ECONOMIC INDICATORS
(% increases)

	2000	2001	2002
Growth of GDP	6.0	0.0	1.6
Consumer Price Index	0.0	1.3	2.1
Industrial Production	10.1	1.1	2.0

1990년대 후반에 2-3%의 성장을 이룩한 뒤, 2000년에는 GDP 성장률이 6.1%로 급상승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주로 최첨단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액수는 9십억 달러에 이른다.

2000년에는 연말에 성장률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2000년 4/4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3/4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10% 떨어졌다. 중동의 폭력사태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크게 줄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수출이 줄어들었고, 나스닥의 급격한 하락세는 이스라엘의 신규 외국인 투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정과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는 이스라엘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고, 2001년에는 산업제품의 수출과 관광 서비스가 크게 위축되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산업의 비중이 크고, 투자와 수출시장을 미국과 EU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하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2002년에는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면서, 이스라엘의 실질 GDP 성장률이 1.6%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지역분쟁으로 인하여 2003년까지 관광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이러한 성장전망에 영향을 끼쳤다. 2003년 이스라엘 경제는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세의 영향으로, 실질 GDP가 4.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정책

2001년 2월 열린 선거에서, 좌파인 바락은 우익 강경파 후보인 아리엘 샤론에 대패하였다. 아리엘 샤론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폭력사태는 크게 늘어서 수도는 여러 차례 폭탄공격을 받았다.

새 정부는 안보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다급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지속적인 수송 인프라 개선, 점차 커지는 소득격차의 해결이라는 당면과제가 있지만, 어두운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개혁과 규제완화의 속도는 계속 늦추어질 것이다.

2000년 9월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심화는, 허약한 국내 정치환경과, 미국정부의 교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치가 불확실해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은 처음에는 다소 머뭇거렸으나, 이 지역의 다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쟁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고, 팔레스타인과의 긴장을 늦추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완화되면, 무슬림과 아랍세계의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한 공격을, 이스라엘이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산업전망

이스라엘의 산업부문은 노동인구의 1/4 이상을 고용하며, 이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특히 전자산업, 방위산업, 수송장비, 금속산업, 다이아몬드 완제

품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규모의 다이아몬드 무역 국가이다.

비교적 발전된 산업기반과 대규모 농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와 지형 때문에, 농업부문은 GDP의 4% 정도만을 차지한다.

다양한 정치적 경향에 의해, 민영화의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국가는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과 매각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신정부는 공공부문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민영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부문, 화학산업, 국내항공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4) 전자산업 동향

매출규모가 2백만 달러 이상인 전자회사의 총수 : 125 (1995)

주요 생산 부문 : 통신/전기통신, 컴퓨터 용품, 의료시스템, 구성부품

전자산업의 고용인구 : 53,800 (2000)

2000년은 이스라엘 전자산업계의 최고의 해였다. 전자장비와 구성부품의 생산이 60% 증가하여 113억 달러의 산출을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의 전자산업은 방위물품의 공급과 통신상의 필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기타 주요 부문으로는 의료장비, 제어 및 계측, 부품 산업 등이 있다. 소비재 생산은 제한적이며, 앞으로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전자제품의 생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급성장을 하였는데, 이는 방위목적으로 복잡한 첨단 전자시스템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위산업제품의 발전은 최첨단 민간 응용제품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전체 생산 증가율은 1994년에 18%, 1995년에 20%로 급상승하였다가, 1996년에 11%, 1997년에 12%, 1998년에 11%로 상승폭이 둔해졌다.

1999년에는 생산이 9% 증가하였고, 무선통신, 통신장비, 반도체 부문은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의료장비와 계측부문은 성장률이 떨어졌다.

2000년 모든 산업부문은 상승세를 보였다. 구성부품 산업은 145%나 성장하여 전체 산업성장을 이끌었다. 통신장비의 생산은 45% 늘어났고, 계측은 46%, 컴퓨터 제품은 30% 늘어났다. 심지어 소비재 산업도 17%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시장은 생산증가율과 비슷한 비율로 성장해 왔으나, 2000년에 수출은 62% 증가한 반면, 수입은 25%만 증가하여 시장성장률은 34%에 머물렀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시장이 제한되었고, 불안한 국내상황은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생산이 적어도 7%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전자산업계의 고용인구가 급증하여, 1999년 45,800명에서 53,800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13,000명이 고용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수치이다.

노동자 1인당 생산은 1999년 187,000달러에서 232,000달러로 늘어났다. 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의 숫자가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42%에서 2000년에 62% 증가하였다. 다수의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은 유럽과 미국의 가장 선진적인 제조업체에서 훈련을 받거나 실제적인 직장경력을 쌓았다.

전자산업계는 새롭게 설립된 회사수가 많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2년 이전에도 일본과의 정치, 교역상의 유대를 바탕으로, 일본기업은 특정 전자부문의 기술을 구매하였다.

그 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자, 주요 동아시아 투

자국들은 이스라엘 전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표명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EU,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세계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과세 금지법령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활동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이스라엘 전자산업 생산전망

(단위 : 백만불)

품 목	1999	2000	2001	20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50	1500	1425	1454
사무기기	11	13	13	13
계측기기	550	800	768	783
의료 및 산업용기기	710	1040	1019	1048
방송기기	850	1400	1176	1117
통신기기	2400	3300	2904	2759
가정용기기	77	90	94	98
비디오	9	10	9	8
오디오	68	80	85	90
전자부품	1273	3125	2722	2814
능동부품	548	1440	1195	1256
수동부품	594	1475	1328	1354
기타부품	131	210	200	203
총 계	7021	11268	10121	10085

남아프리카 공화국

1) 최근동향과 중기전망

LEADING ECONOMIC INDICATORS
(% increases)

	2000	2001	2002
Growth of GDP	3.1	2.6	2.9
Consumer Price Index	5.3	6.0	5.8
Industrial Production	4.4	3.3	3.0

시장의 위기로, 2년간 성장이 부진하였으나, 2000년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1998년 0.7%, 1999년 1.9%에 이어서 2000년에는 3.1% 상승하였다. 1994년 - 2000년 기간의 연 평균 성장률은 2.7%였다.

2001년 상반기에는 농업생산이 4.2% 감소하고, 제조업과 광업 부문의 생산 증가율이 1%에 그쳐서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2001년 하반기에는 세계수요가 약화되어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며,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미하여, 경기후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상반기에도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수출수요와 투자가 회복되어 완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정책

넬슨 만델라는 1997년 말에 ANC의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1999년 초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였다. 그가 공석에서 물러나자, 엠베키 부통령이 최고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만델라 퇴임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엠베키는 부통령 자리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엠베키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ANC는 지배적인 정치세력으로, 1999년 6월 선거에서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되었다. 9개 지역에서 실시된 2000년 지방선거에서 ANC는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ANC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나오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고 행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활동기반이 좁은 편이다.

3) 산업전망

제조업 생산은 1998년에 3% 이상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생산이 크게 늘어서, 매년 4%의 증가세를 보였다.

GDP의 19%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의 측면에서 광업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업은 남아프리카 경제의 기초적인 산업 부문이다. 2000년 광업과 채석업은 GDP의 6.5%를 차지하였고, 이는 1985년의 15% 비율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광업 부문 총매출의 78% 이상은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정도는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은, 민영화의 요소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 1997년에는 국영자산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매각을 단행하여, 국내 항공사, 일부 수송 네트워크, 전기통신산업을 민영화하였다.

4) 전자산업 동향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자산업은 몇 년간 낮은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친 뒤, 1998년에 14%, 1999년에 10%, 2000년에 12% 성장하였다. 이는 6%, 3%, 7%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의 실질 성장률이다. 하지만, 산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이라서, 2000년 생산은 11억 달러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수출증가율은 1998년 38%, 1999년 16%였으며, 생산의 50%를 차지하였다. 2000년에는 수입품으로 충당되는 국내시장

비율이 79%에 달하면서, 12%의 실질적인 수입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 산업부문은 전기통신과 무선통신 산업이며, 2000년 방송장비와 레이더 장비를 포함하여 전체 생산의 48%를 차지하였다. 1996년에는 생산의 13%만이 수출되었으나, 2000년에는 33%가 수출되었다.

컴퓨터 용품과 부품 산업도 성장하여, 2000년에는 생산의 16%를 차지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수출되었다. 수입품은 컴퓨터 시장에 주로 부품과 액세서리를 공급한다. IBM, 히타치, 콘트롤 데이터, 유니시스와 같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전체 컴퓨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문은 제어계측장비 산업이며, 사실상 모든 제품이 수출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로 저기술 제품이며, 시장의 대부분은 수입품에 의존한다.

부품 산업은 국내생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부품의 93%가 수입된다. 주요 공급업체로는 지멘스, 플레시, 뉴렛,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화 제조업체, 연합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반도체 부문의 SAMES(남아프리카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시스템)는 국제 전자산업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일의 집적회로 제조업체이다.

가전업계에서는, 정부가 특히 TV 제조업에 대하여 국내생산과 경쟁을 조장하여, 국내 생산이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컬러 TV의 생산은 1995년 527,000대에서 1998년 405,000대로 줄어들었으나, 2000년에는 515,000대로 늘어났다.

시장은 실질적으로 대략 10%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8년에는 무선 통신산업(휴대전화기 포함)과 전기통신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시장의 실질 성장률은 28%로 치솟았다. 1999년에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시장은 실질적으로 7% 감소되었으나, 2000년에는 다시 10% 성장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자산업 생산전망

(단위 : 백만불)

품 목	1999	2000	2001	20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0	173	178	187
사무기기	6	6	6	6
계측기기	79	86	93	103
의료 및 산업용기기	88	84	87	93
방송기기	172	166	171	179
통신기기	376	360	367	375
가정용기기	168	177	182	188
비디오	91	89	92	97
오디오	74	85	87	88
기타	3	3	3	3
전자부품	50	51	50	53
능동부품	12	13	13	14
수동부품	31	31	30	32
기타부품	8	7	7	7
총 계	1119	1103	1134	1184